

[home&] 어머니, 살림 잘하는 남자 다섯

<사회> 2010. 03. 29

살림 잘하는 남자들, 의외로 많다. 최근엔 인터넷 블로그에 자기만의 노하우를 올려 인기를 끄는 남자 파워 블로거들도 꽤 된다. 이들은 ‘살림이야말로 남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변한다. 실제로 이들의 살림 요령을 읽다 보면 보통 주부들보다 내공이 탄탄하다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살림 잘하는 남자가 사는 집을 들여다봤다.

글=서정민 기자, 사진=권혁재 전문기자

청소 잘하는 남자 한민규씨 청소기 3대로 집안이 반짝반짝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서른 살이 넘으니 어머니께서 ‘하숙비’를 운운하며 자질구레한 가사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살림을 하게 됐어요.”

한민규(32·홍보대행사 근무)씨는 ‘청소기 100배 활용하기’의 달인이다. 집에 있는 청소기는 3대. 손잡이형 작은 청소기와 진공청소기, 스팀청소기다. 청소기 헤드에 교체해 사용하는 액세서리는 여러 개를 갖고 있다. 길이가 짧고 뾰족한 칼날 형태, 길이가 길고 휘어지는 형태, 동그랗고 솔이 짧은 형태, 세모난 모양에 솔이 긴 형태, 페인트 붓처럼 끝이 납작한 형태 등등.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인다고 청소가 다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게 한씨의 주장이다. 소파 구석, 침대 모서리, 창문 홈, 문 위까지 꼼꼼하게 청소를 하려면 용도에 맞게 청소기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것. 물론 욕실에도 칫솔을 비롯한 길이가 다른 솔과 욕실 세정제, 베이킹 소다가 나란히 갖춰져 있다.



밀레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기 100배 활용하기’ 비법들을 조언한 한민규씨.

한민규씨의 노하우

- 소파와 카펫, 레이스 소재의 침대보 등은 먼저 짧은 솔로 먼지를 비벼 쓸어낸 후 청소기로 빨아들여야 한다. 말총으로 만든 천연 소재의 솔 제품도 나와 있다.
- 물과 먼지가 엉겨 있는 싱크대 주변도 진공청소기의 솔 액세서리를 이용해 문질러 가며 청소하는 게 좋다.
- 가구나 전자제품은 물걸레질을 하고 나면 물 얼룩이 남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극세사 소재의 걸레를 이용하는 게 좋다. 극세사 걸레는 완전히 비틀어 짤 수 있어 습기 조절을 할 수 있고, 작고 얇게 접기도 좋아 얇은 흙의 먼지, 피규어 등 작은 제품을 닦을 때도 좋다.
- 두루마리 휴지를 적당히 잘라 물을 살짝 묻힌 다음, 수시로 집 안 구석구석을 닦아두면 주말 대청소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스팀청소기를 사용할 때면 바닥 재질과 마찰이 생겨 밀기 뻑뻑하다 싶을 때가 있다. 이때는 두께가 얇은 걸레로 교체한다. 요즘은 청소기에 달려 나오는 것 외에 교체용 제품들이 따로 판매된다.

장 잘 보는 남자 최우석씨

물건 사는 법, 아이폰 앱에도 올렸죠

쇼핑 노하우에 관한 한 최우석(35·프로그래머)씨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아이팟 애플리케이션 중 'what's new'라는 쇼핑 프로그램을 개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오늘은 도미찜을 할 거예요.” 그는 재래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며 말했다. “도미·무·파·버섯·미나리를 사고, 당근은 어제 사둔 게 조금 남았으니까...” 시장을 요리조리 훑고 지나가는 그의 품이 날래다. 채소를 고르기 위해 좌판 앞에 쪼그려 앉는 모습도 자연스럽다.

‘필요한 양만큼 질 좋은 상품을 고른다.’ 이게 그의 쇼핑 원칙이다. 그는 생필품은 사이트를 뒤지며 가격을 비교한 뒤 온라인으로 사고, 음식 재료는 백화점·대형마트·재래시장에서 직접 장을 본다. 또 가격이 싸다고 총동구매를 하는 건 금물이다.

최우석씨의 노하우

- 퇴근 후 7~8시쯤 시장을 본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폐장 세일 시간이어서 보다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다.
- 쇼핑 가기 전, 살 물건과 개수를 꼼꼼히 적어 간다. 메모해 간 것 이외의 것은 절대 사지 않는다.

- 장 보기 전에 메뉴를 정한다. 요리재료의 종류와 적당한 양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어디에 가서 사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 손님을 초대할 때는 소수이면 백화점에서, 집들이처럼 많은 사람이 오면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게 좋다.
- 물은 인터넷으로 사는 게 대형마트보다 50% 가까이 싸다. 배송도 직접 해주니 무겁게 들고 오는 수고도 줄일 수 있다.
- 와인은 세일이나 창고를 개방하는 기회를 노린다. 와인 회사 홈페이지 또는 와인 동호회를 이용하면 이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품질이 맘에 든 공산품을 정해 두고 리필용품을 산다. 가격도 싸지만 분리수거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서정민 기자 [meantree@joongang.co.kr]

권혁재 기자 [shotgun@joongang.co.kr]